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제233군부대직속 구분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233군부대직속 구분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표준병영설계대로 꾸린 중대병영을 돌아보시였다.

훈훈하게 덥혀진 침실에 들리시여 온도를 가늠해보시고 난방보장정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서 난방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군인들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병실에서 생활하며 건강한 몸으로 전투정치훈련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리발실을 비롯한 군무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을 손색없이 잘 꾸려놓았고 특히 세목장의 물탕크에 수질이 좋은 물이 가득차있는데 훈련장에서 땀을 흠뻑 흘린 군인들이 마음껏 몸을 씻으며 좋아할것이라고 기뻐하시였다.

정치사상교양거점인 교양실도 잘 꾸렸다고 하시면서 탁상교양자료를 비롯한 사상교양수단들을 더 잘 갖추어놓고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계계급교양, 도덕교양을 참신하

고 실속있게 벌려야 한다고, 병사들의 정치사상적합보다 더 강한 무기는 이 세상에 없으며 인민군대가 사상을 틀어쥐어야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취사장의 조리대에 차려놓은 물고기와 고기를 비롯한 갖가지 음식감들과 콩창고에 그득하게 쌓여있는 콩을 보시고 살림살이를 간지고 알뜰하게 하는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은 군인생활개선이 자 싸움준비완성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부업에 계속 큰 힘을 넣는것과 함께 기초식품을 비롯한 후방물자들을 정상적으로 보장해주어 군인들의 식생활을 풍성하게 해야 한다고, 중대를 꾸집한 식탁과 포근한 잠자리가 있는 병사들의 정돈 고풍함으로 만드는것은 곧 그들의 전투적사기를 높여주는 중요한 정치사업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휘성원들은 늘 중대에 내려가 병사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듯이 돌봐주며 훈련과 군무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줌으로써 군인들이 오직 훈련에만 전심전력하

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울창한 수림속에 들어앉은 병영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주변환경이 대단히 좋다고, 이곳 중대로 오면서 산마다 나무들이 가득한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더 많은 나무를 심고 정성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대의 군사대상물들을 돌아보시면서 싸움준비와 훈련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대에서 훈련을 실천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여 군인들을 강의한 정신력과 완강한 투지, 높은 전투능력과 자질을 소유한 쇠소리가 쟁쟁나는 일당백의 만능병사로 튼튼히 준비시키고있으며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자나깨나 싸움준비만을 생각하면서 무기, 전투기술기재의 정상적인 전투동원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초소와 진지들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더욱 튼튼히 다져가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대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전투임무수행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훈련들을 실천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여 군인들을 그 어떤 어려운 전투임무도 훌륭히 수행하는 다병종화된 싸움군들로 준비시킬데 대한 문제, 군인들이 현대적인 전투기술기재들을 자기의 눈동자처럼 적극 애호관리할데 대한 문제, 구분대주둔지역을 철벽의 요새로 다지며 위장을 잘 할데 대한 문제 등 싸움준비완성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대군인들이 조선로동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원쑤들에 대한 서리발같은 증오심을 안고 사회주의조국을 철벽으로 지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쌍안경과 자동보총, 기관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다그쳐나가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 진행,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가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연합회의에서는 의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뜻깊은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강지영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지금 전체 조선민족의 가슴가슴을 새로운 통일열망으로 불라게 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에서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돌과 10.4선언발표 열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

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필생의 념원인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고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드팀없는 신념과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주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은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불멸의 대강이라고 하면서 이를 전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그들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국통일3대원칙을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천명하시고 6.15통일시대를 펼쳐주시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인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진로를 뚜렷이 밝혀주시고 불멸의 로고와 정력적인 령도로 세기를 이어오는 조국통일운동을 새로운 전성기에로 이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버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온 겨레가 서로 손을 맞잡고 통일의 한길로 매진한다면 불신과 대결의 뎅기가 흐르던 이 땅우에 반드시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전체 조선청년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애국애족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평화국복반부의 청년들이 올해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서 선봉투사가 되고 기수가 되며 반미자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해외동포청년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종교인들이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과 단체들사이의 련대와 련합을 적극 주선하고 지원하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한 통일운동에 기여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민족의 넋을 지닌 종교인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단합을 위한 성스러운 제단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연합회의에서는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본사기자



조선민족의 강대한 힘과 드높은 통일의를 충분출시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기어이 열어나가자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

조국통일의 휘황한 진로를 밝혀주고 온 겨레를 통일애국투쟁으로 부르는 위대한 호소가 삼천리강산에 뜨겁게 메아리치고있다.

새해의 첫 아침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겨레의 가슴마다에 통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는 승리의 표대이며 거족적통일대진군의 앞길을 밝히는 찬란한 해불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매우 의미깊은 해로 되도록 그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열렬히 호소하신 절세위인의 진정에 누구인들 심장의 피를 끓이지 않고 애국애족의 큰걸음을 내딛지 않을수 있겠는가.

올해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돌과 10.4선언발표 열둘이 되는 해이다.

45년전 분렬사상 처음으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이 담긴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 평양과 서울에서 울려 퍼질 때 온 겨레는 그 얼마나 감격과 환희로 설렘었는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더불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통일대강인 10.4선언이 탄생하였을 때 삼천리강산에 메아리치던 겨레의 환호성은 오늘날도 귀전에 쟁쟁하다.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승리의 좌표를 따라 전진해온 조국통일운동사에 아로새겨진 그 빛나는 자욱과 소중한 성과를 우리는 정녕 력사의 추억으로만 되새길수 없다.

그날의 감격과 환희를 백두에서 한나까지 다시 한번 분출시켜 제2의 6.15시대를 열어놓으려는것은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

오늘 북남관계는 최악의 파국에 처해있고 전쟁의 한파가 엄습하는 조선반도정세는 첨예하다.

그러나 우리 겨레가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안고 떨쳐나선다면 뚝지 못할 난관이 없고 극복 못할 장벽이 있을수 없다.

겨레의 통일기세는 충천하며 민족의 자주적힘은 비할바없이 강대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돌과 10.4선언발표 열둘이 되는 뜻깊은 올해 절세위인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뜨겁게 맥박치는 조국통일 의지를 받들어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갈 확고한 결심과 열망을 안고 전체 조선민족에게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

1. 위대한 태양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애국애족의 진정성이 자넘치는 자주통일로선과 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자! 민족의 결집한 위인을 모시어 우

리 민족의 앞길에는 새 세기 자주통일의 대강이 찬란히 빛나고있다.

절세위인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천명하신 주제적통일로선과 방침은 통일의 앞길을 밝히는 향도의 해불이며 통일강국건설의 절대적 리정표이다.

온 겨레가 민족자주와 대단합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 통일의 앞길을 힘차게 열어나가자!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의 생명선이며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불과 한세기전까지만 하여도 비참한 식민지약소민족으로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해야 했던 조선민족은 백두산천출위인들을 대를 이어 모시어 그 어떤 대적도 무서운것 없고 그 어떤 대국도 부러운것 없는 강대한 민족으로 위용떨치고있다.

태양민족의 일일단결 높은 민족적 자존심과 배짱을 지니고 조국통일운동에서 자주의 가치를 더 높이 추켜들자!

지혜롭고 강의한 우리 민족이 무엇때문에 아직도 외세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며 여기저기 통일문제를 구걸하여야 하겠는가.

믿어도 우리 민족의 힘을 믿고 승배를 해도 자기 민족을 숭배하며 통일론의를 해도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나가자!

민족자주가 애국이고 통일이라면 외세의존은 매국이고 분렬이다.

온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인된 자각을 안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힘차게 개척해나가자!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이다.

사상과 리념, 주의주장의 울타리를 넘어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가치 밑에 하나로 굳게 뭉치자!

6.15시대에 넘치던 혈육의 정, 애국의 피를 다시금 뜨겁게 끓이며 민족대단결의 거세찬 대하를 이 땅위에 장엄하게 펼쳐놓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민족의 사활적인 문제이며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모든 전쟁연습들을 단호히 반대배격하자!

한치 앞도 내다볼줄 모르는 전쟁광신자들의 경거망동이 조선반도정세를 수습할수 없는 사태에로 몰아가고있다.

거족적인 반미, 반전투쟁으로 조선반도에서 침략과 전쟁의 화근을 들어내고 삼천리강산을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평화의 보금자리로 만들자!

통일강국의 빛나는 용자를 세계의 하늘높이 만들어올리는 유일한 길은 전쟁이 아니라 련방제통일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하자!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련방제방식으로 조국을 통일하자!

주제적통일로선과 방침을 관철하는데 분렬의 비극을 가시고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있다.

태양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안고 모두가 절세위인의 통일대강실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2.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벌려나가자!

북남관계를 개선하는것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이다.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수수방관한다면 그 누구도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한다고 말할수 없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박근혜의 대결정책을 계속 고수해보려고 발광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오고 있다.

북남관계파국의 주되는 요인이며 관계개선의 암적존재인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불신과 반목, 적대와 대결로 얼룩진 과거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극단으로 치달고있는 현 북남관계는 상상할수 없는 충들로 번져질수 있다.

동족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불신과 적의에 매몰되고 허황한 제도전복과 《변화》의 망상에 사로잡혀 벌리는 반통일대결광들의 대결과 적대행위들을 절대로 용납치 말아야 한다.

북과 남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손잡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길로 나아가 할 통일의 동반자이다.

남조선당국은 민심의 심판을 받고 시궁창에 처박힌 박근혜의 대결정책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관계개선을 바라는 민족의 요구에 하루속히 응해나서라!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는것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전체 조선민족은 북남사이의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거족적성전을 힘있게 벌려나가자!

조선민족의 성원이라면 누구나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서 한몸이 그대로 평화의 추진기, 평화의 디딤돌이 되자!

동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겨레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백두산혁명강군이 틀어쥔 주체의 핵보검은 철두철미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안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한피줄을 이은 동족을 해치기 위한것이 아니다.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보인 주체의 핵보검을 북남관계개선의 장애로 매

도하려는 허황한 꾀변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자위적행사들에 대해 무력대고 걸고들것이 아니라 북남간의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 화답해나서라!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는 무모한 무력강제책동과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당장 걷어치우라!

미제침략군과 괴뢰호전광들의 위협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전민족적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가자!

3.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성사시켜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조국통일은 전민족적인 애국위업이며 그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련대련합하고 단결하자!

어느 당파나 계급의 리익도 민족공동의 최대위업인 조국통일보다 더 중요시되고 우선시될수 없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거족적통일운동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민족의 근본리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는 절세위인의 대법하고 웅대한 뜻과 뜨거운 포용력이 온 겨레를 민족대단결광장으로 힘있게 부르르고있다.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기어이 성사시키려는것은 막을수 없는 겨레의 열망이며 우리의 확고한 의지이다.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자!

정의와 량심의 길, 애국애족의 길과 잇닿아있는 통일대회합에 그 누구이든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파감히 참가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동족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병적의심을 버리고 우리의 진정어린 통일대회합제안에 동참해나서야 하며 남녘동포들의 의로운 민족대단합의 길을 방해하지 말고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힘을 합치면 대로가 열린다.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각계각층 동포들은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기어이 실현하여 민족대단결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자!

온 겨레가 뜻과 힘을 합쳐 올해를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로 빛내이자!

4.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반통일세력들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북과 남으로 갈라져 서로 불신하고 대결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집요하고 악랄한 방해책동때문이다.

지금 미국과 박근혜사대매국세력을 비롯한 내외의 반통일세력들은 날로 장성강화되는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과 정의의 지향하는 남녘겨레의 거세찬 투쟁을 가로막기 위해 최후발악하고있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외세와 사대매국세력의 도전을 결정적으로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예나 지금이나 미국은 분렬의 원흉이며 통일의 기본장애물이다.

남조선을 영원히 타고앉아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지배와 간섭책동에 철추를 내리자!

파멸의 시각이 다가올수록 박근혜를 비롯한 친미매국패당의 대결광기는 더욱 악랄하고 무모해지고있다.

미국에 추종하여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친미매국세력을 매장하기 위한 대중적항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리자!

정의의 해불을 높이 추켜들고 진정한 민족의 주적도 가려보지 못한 채 외세에 민족의 리익을 섬겨바치며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매국배족의 무리들을 단호히 쓸어버리자!

동방의 핵강국인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비상이 높아지고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막강한 위력과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리라!

민심의 버림을 받은 대결광신자들을 부추겨 분렬을 지속화하려는 교활한 민족리간술책을 당장 걷어치우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잇닿아있는 정의의 위업이다.

자주와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라!

전체 조선민족이여!

절세위인의 손길따라 자주통일의 최후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에 승리와 영광의 대로가 펼쳐져있다.

모두다 태양민족의 긍지와 영예, 강대한 민족의 자부심을 안고 통일강성조선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우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절세위인의 애국애족의 호소를 높이 받들어 격변의 2017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의미깊은 해로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다시 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출발점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역사적인 7.4공동성명 발표 마흔다섯돌과 10.4선언발표 열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열같은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얼마전 평양에서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에서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된것도 겨레의 자주통일의 지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올해 조국통일투쟁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가르쳐주신것처럼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이다. 북과 남은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하나의 강토에서 한피줄

을 이으며 살아온 동족이며 화해와 단합의 상대이다. 비록 북과 남사이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서로 대결하고 반복질시하여야 할 리유나 조건으로 될 수 없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사활적문제이며 이제 더는 미룰수 없는 지상의 과제이다. 조국강토가 두동강나고 우리 민족이 서로 갈라져 불행과 고통에 시달리고있는지도 어언 70년 세월이 넘었다. 세기를 이어 지속되는 분렬의 비극속에서 세대가 바뀌고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은 증대되고있다. 우리 민족이 계속 북과 남으로 갈라져 대결한다면 언제 가도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수 없다. 북남사이의 대결과 불신의 관계를 지속시키는것은 력사와 후대앞에 돌이킬수 없는 죄악으로 된다.

하기에 지금 온 겨레는 상상적의 과구상태에 처한 북

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민족의 운명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북남관계개선을 외면해서는 안되며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애국의 길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반통일적인 동족대결정책을 당장 걸어치우는것이다. 상대방을 자국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온갖 비방중상은 어떤 경우에 도 정당화될수 없으며 제도전 북과 《변화》에 기대를 걸고 감행되는 불순한 반공화국모략소동과 적대행위들은 지체 없이 중지되어야 한다.

남조선에서 동족을 적대시하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는 반통일적인 정책이 유지되는 한 북남관계의 과구는 절대로 해소될수 없다.

지난해의 곡절많은 북남관계가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지난해 공화국은 북남관계의 과구를 끝장내고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에 애국애족의 일념밑에 가장 정당한 통일로선과 방침을 천명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남조선 당국자들은 동족의 애국애족적 호소와 성의있는 제의를 한사코 외면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괴립압살소동에 광분하면서 북남관계를 더욱더 과구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보수패당의 그 어떤 발악도 민족의 힘을 하나로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지향과 의지를 가로막을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전환을 이룩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올 해 신년사에서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버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업은 내외반통일세력과의 치열한 대립과 투쟁을 동반한다. 하지만 험난하다고 중도반단할수 없는 것이 조국통일사업이며 순간도 멈춰세울수 없는것이 우리 민족의 통일애국투쟁이다.

남조선을 타고앉아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끝장내며 진정한 민족의 주적도 가려보지 못하고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사대매국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미국은 장장 70여년동안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각방으로 방해해온 주범이다.

남조선을 영원히 정치군사적으로 틀어쥐고 그것을 발판으로 전조선반도와 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야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달라진것이 있다면 침략과 간섭의 수법이 보다 교활해지고 악랄해졌으며 우리 민

족의 분렬에서 어부지리를 얻은 대가로 더욱 비대해진것뿐이다.

오늘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방해책동은 더욱 미친듯이 감행되고있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매달리면서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집결시키고 핵전쟁위험을 증대시켜온것은 우리 민족의 드높은 통일기운을 차단하기 위한 고의적인 망동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체제를 강화하면서 저들의 손때묻은 주류를 동족대결에로 내모는 등 민족리간섭책동을 일삼는것도 조선반도의 대결상태와 분렬을 무한정 지속시키기 위한것이다. 우리 민족내부에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그것을 통해 불순한 침략목적들을 달성해보려는 미국의 파렴치한 간섭책동은 그 무엇으로도 합리화될수 없다.

미국은 조선민족의 통일의를 똑바로 보고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을 동족대결과 전쟁으로 부추기는 민족리간섭책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한다.

겨레의 절절한 통일념원을 외면하고 외세의 옷자락에 매달려 동족대결책동을 강화하는 데서 살길을 찾는 박근혜와 같

은 민족반역자들의 망동은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바라는 전체 조선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용납 못할 도전이다.

최근 남조선전역에서 벌어지고있는 각계층 인민들의 대중적인 초출시위투쟁은 극악한 반통일대결 《정권》으로 악명떨친 박근혜적패당을 멸망의 무덤속에 몰아넣고있다. 이것은 역적패당의 동족대결정책이 총파산의 위기에 빠졌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온 겨레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돌과 10.4선언발표 열두이 되는 올해에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거족적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온 민족이 한데 뭉쳐 떨쳐나선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 외세와 매국노들이 제아무리 반통일책동에 광분해도 겨레의 힘을 당해낼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매우 의의있는 해로 빛내어나가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오늘 조선반도에는 외세의 발뒤꿈치에 매달려 동족대결과 전쟁소동에 광분하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발악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초긴장상태가 조성되어있다.

민족의 머리우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보수패당의 망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온 겨레가 진정한 민족의 주적도 가려보지 못하고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는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사대매국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 민족의 진정한 주적은 삼천리강토를 두동강내고 수천년세월 하나의 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에게 참을수 없는 분렬의 고통과 불행, 전쟁의 재난까지 들쭉운 미국을 비롯한 외세이다.

미국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첫날부터 남조선인민들을 상대로 온갖 살륙과 범죄만행들을 저지르면서 저질러왔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의 격분을 자아내는 지난 조선전쟁시기의 미군의 로근리민간인대 학살만행과 의정부녀인벙기 칠사건, 1962년의 파주나무군 사살사건, 윤금이살해사건 등 미군이 남조선인민들에게 저지른 범죄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것들이었다.

최근시기에도 미국은 위협수치가 극도에 달하는 탄저균, 페스트균 등을 비법적으로 남조선강점 미군기지에 반입하여 실험을 진행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꺼리지 않고있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남조선을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지배 전략실현의 거점으로 만들고 해마다 남조선호전광풍과 함께 북침을 노린 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왔다. 미국이 남조선에 매비하려고 하는 《짜드》하나만 놓고보아도 남조선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엄중히 위협하는 강대, 동북아시아지역의 긴장격화의 주범으로서의 미국의 정체를 정확히 알수 있게 한다.

현실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와 같은 남조선의 반통일사대매국세력이 미국을 비롯한 외세는 《우방》이니, 《은인》이니 뉘니 하며 섬기면서 한피줄을 나눈 동족은 어떻게 하나 모해하고 괴립압살하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리고있는것은 참으로 민족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보수패당은 해마다 공화국을 《주적》이니, 《우리의 적》이니 뉘니 하면서 고평하면서 남조선사회에 동족대결의식을 고취하고 저들의 반민족, 반통일망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날뛰어왔다. 올해에 공화국이 신년사를 통해 동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겨레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해나갈데 대해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년초부터 화약내를 피우고 대결망언들을 일삼으며 이 한해도 동족대결의 광적인 마차를 계속 몰아가려 하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는 보수패당의 이러한 반통일사대매국행위를 반대배격하는 목소리들이 더욱 높아지고있으며 지어 륝군사관학교 학생들속에서까지 《우리의 주적은 미국》이라고 대답하는 학생수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진정한 민족의 주적도 가려보지 못하고 동족대결에서 살 길을 찾는 반통일사대매국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힘있게 벌려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통일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김장호

적인 협정들을 체결하던 미국은 이제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조선반도가 통일되고 평화로워야 동북아시아가 편안할수 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수 있다.

통일된 우리 나라는 자주적이고 평화애호적이며 중립적인 민족통일국가로서 주변나라들의 리해관계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들에 위협으로도 되지 않을것이다.

주변나라들은 조선의 통일문제가 우리 민족의 요구와 의사에 맞게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고 세세년년 갈망해온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거이어 안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우리 나라는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배치되게 외세에 의하여 분렬을 강요당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실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에 제멋대로 38° 선을 그어놓고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였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은 군정을 실시하면서 나라의 완전독립과 자주적발전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면서 저들의 친미사대세력을 내몰아 조선반도의 분렬을 고착시켰다. 그리고는 조선반도를 통치로 타고앉기 위한 침략과 새 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수수천년 한강토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외세가 인위적으로 그어놓은 38° 선에 의해 둘로 갈라져 70여년, 그동안 세계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크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

리 민족은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세기를 이어오는 분렬의 비극을 겪고있다.

미국은 오늘도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해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국제무대에서

불신과 대결을 부추기지 말고 조선민족의 통일지향과 노력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일을 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장본인이며 통일의 방해자인 미국은 조선민족의 통일의를 똑바로 보고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을 동족대결과 전쟁으로 부추기는 민족리간섭책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

일본은 조선반도에 대한 재침야욕을 버리고 조선민족앞에 저지른 과거죄악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죄하여야 하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애당초 일제의 강점과 식민

지통치가 없었더라면 우리 민족은 그토록 비참하고 굴욕적인 수난의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았을것이며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이라는 엄청난 비극도 겪지 않았을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천추만대에 씻지 못할 특대범죄를 저지른 일본은 패망후에도 조선의 통일운동을 방해해나서고 공화국을 괴립압살하기 위한 제재와 압력소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이미 지은 죄에 새로운 죄를 덧쌓아왔다. 일본은 40여년간의 식민지정치의 패망후 70여년동안 적대시로 이어진 범죄사태에 대해 우리 민족이 철저히 계산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조선반도가 령강들의 각축전

이 일을 각방으로 방해해나서고 공화국을 괴립압살하기 위한 제재와 압력소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이미 지은 죄에 새로운 죄를 덧쌓아왔다. 일본은 40여년간의 식민지정치의 패망후 70여년동안 적대시로 이어진 범죄사태에 대해 우리 민족이 철저히 계산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조선반도가 령강들의 각축전

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렬을 강요당하였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공화국은 이미 자기의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올랐다. 조선반도에서 령강들이 대포를 쏘아대며 굴욕

조선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반공화국제재와 압박을 요란하게 떠들어대며 남조선의 반통일사대매국세력을 동족대결과 전쟁으로 계속 부추기고있다.

자주와 정의의 귀중히 여기는 국제사회는 마땅히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반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선의 분렬에 관련된 나라들과 주변국들은 북남사이의

추기는 민족리간섭책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

일본은 조선반도에 대한 재침야욕을 버리고 조선민족앞에 저지른 과거죄악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죄하여야 하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애당초 일제의 강점과 식민

일을 각방으로 방해해나서고 공화국을 괴립압살하기 위한 제재와 압력소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이미 지은 죄에 새로운 죄를 덧쌓아왔다. 일본은 40여년간의 식민지정치의 패망후 70여년동안 적대시로 이어진 범죄사태에 대해 우리 민족이 철저히 계산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조선반도가 령강들의 각축전

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렬을 강요당하였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공화국은 이미 자기의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올랐다. 조선반도에서 령강들이 대포를 쏘아대며 굴욕

적인 협정들을 체결하던 미국은 이제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조선반도가 통일되고 평화로워야 동북아시아가 편안할수 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수 있다.

통일된 우리 나라는 자주적이고 평화애호적이며 중립적인 민족통일국가로서 주변나라들의 리해관계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들에 위협으로도 되지 않을것이다.

주변나라들은 조선의 통일문제가 우리 민족의 요구와 의사에 맞게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고 세세년년 갈망해온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거이어 안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내가 본 최고령도자님의 민생행보

세상에는 한다 하는 국가지도자들, 정치가들이 적지 않다. 그들의 공약이나 언약을 보면 《경제성장》과 《만민복지사회 건설》 이고 결론 또한 《~하겠다》, 《~될 것이다》, 《~확신한다》는 말이다. 단언하건대 그 말들은 실적을 위한 노력이 결여되어있다. 대부분 선거철의 말로 끝나는데 허다하다.

일부 국가지도자들, 정치가들은 민생행보도 이따금 하지만 그것도 보여주기식이다. 그나마 시장이나 가게방 그리고 음식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며 주민들과 몇마디 말을 나누고는 돌아서기 일췌이다. 민중은 자신의 생활에서 체부로 느끼게 되는 정치에서 고마움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와는 관련이 없는 《사진찍기》식, 보여주기식 민생행보는 종당에 대중의 환멸을 자아내기에 마련이다.

세상의 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정치가 대중의 환멸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있는 지금 조선에서의 정치는 신선한 충격을 주며 세인의 주목을 끌고있다.

북의 정치는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것으로 되고있다.

북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정초에도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 김정속평양제사공장에 새로 꾸린 이불생산공장, 새로 건설된 노동자합숙 등을 련이어 현지지도하시었다. 모두가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장들이다.

인민을 위해 새해정초부터 헌신의 령도자육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을 뵈오니 그이의 신년사구절구절이 뜨겁게 되새겨졌다.

그분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자신을 굳게 믿어주고 한 마음한뜻으로 열렬히 지지해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는데 올해에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 결심을 새해정초부터 실천으로 옮기시며 비약과 기적창조의 또 한해를 마련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이다.

그분의 현지지도가 친근하고 확실성있게 민중의 마음속에 와닿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분께서 국가정치활동의 철칙으로 삼는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일명 조선식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라고 일컫는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에 구현되어있다.

민중을 생명의 뿌리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여기고 민중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더없이 신성히 여긴다는데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기본진수가 있다.

그것을 중핵으로 하여 모든 국가정책을 작성하고 국가활동을 진행해 나가는 것은 이 북의 최고령도자이시고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그분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으로 되고있다.

그분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군인들과 민중이 있는 곳 그 어디나 찾아가신다. 위험천만한 최대열점지역의 섬방어대들과

최전연초소들, 공장과 농촌, 어촌, 과학연구기관과 건설장, 학교와 유치원, 육아원과 애육원, 양로원에 이르기까지 마른 날 곳은날, 낮과 밤이 따로없이 끊임없는 현지지도길을 가고가신다. 한마디로 민중의 마음과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찾으시는 단위들에서 인민들의 생활현황부터 먼저 알아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시는가 하면 로동현장에 가지어서는 생산장정의 묘안과 지름길을 가르쳐주시고 때로는 철부지 어린이들이 무릅없이 울리는 편지도 다 보아주시고 사랑과 정을 담아 회답편지도 보내주신다.

한 나라의 국가령수이시면서도 민중과 자그마한 간격도 격식과 틀을 차림이 없이 대하시며 언제나 《인민》이라는 부름을 즐겨 쓰시는 그분이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 조선로동당창건 70돛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연단에서 하신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연설은 세인이 놀라움속에 평한

바와 같이 《인민으로부터 시작하여 인민으로 끝난 인민을 위한 연설》이였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김정은제1위원장 25분동안 진행한 연설에서 〈인민〉을 97번이나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력사의 돌풍속에서 민은것은 오직 인민뿐이었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인민이 있어 항상 배심든든하였다시며 나아가길 침로를 정할 때마다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준엄한 난공에 부닥칠 때마다 인민의 진정에서 힘을 얻고 하였다고 하신 인민사랑의 고백에 만민이 머리를 숙였다.

우리 당의 력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이고, 우리 당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며 우리 당의 위대함은 곧 인민의 위대함이고 우리 당이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의 승리이라고 하시며 조선로동당의 70년사를 인민이라는 성스러운 이름에 담아 총화하신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이다.

인류력사 이래 민중이 처음으로 받아본 정의 고백이고 세계가 처음으로 들어본 민중사랑

의 연설이었을것이다.

자고로 백성을 위한다는 정치가, 위인들은 적지 않았지만 어느 누가 민중을 전지전능이라 부르고 혁명의 이름이라 칭송하고 승리의 력사라 찬양한적이 있었고 그 누가 민중에게 깊이 허리숙여 진정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린적이 있었으며 누가 민중을 위한 멸사복무를 호소하고 온몸을 초탈처럼 태우며 실천한적이 있었는가.

인민이 바라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하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야 한다는 멸사복무정신을 뼈속깊이 새기신 최고령도자님이시기에 엄혹한 시련과 난관도 박차고 맞받아 나가는 그분의 령도아래 지난 5년간 북은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며 눈부시게 비약하였다. 인공지구위성들이 우주로 날아오르고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섬으로써 나라의 지위가 비상히 높아졌다.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져 인민의 식탁위에 바다향기가 차넘치고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자력자강으로 생산장성을 이룩함으로써 민생은 날이 향상이되고있다.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는 속에 경공업기지들과 상업봉사기관들이 건설 및 개건된 대화되고 민중의 행복과 문명을 뜻하는 거창한 창조물들이 도처에서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민중을 위함이라면 그 어떤 시련도 달겨여기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의지와 헌신적인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북변땅에서는 민중사랑의 새로운 영웅신화, 전화위복의 기적이 창조되었다. 지난해 북부지역이 엄청난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름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들이 당한 불행을 하루빨리 가져주는 일보다 더 중차대한 사업은 없다,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째로 기울여서라도 당장 들이닥칠 강추위앞에서 피해지역 인민들이 고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재해지역을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천지개벽시키시려는 그분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북부지역에서는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새 마을, 새 거리가 단숨에 솟아오르는 전설같은 사변이 일어났다.

이렇듯 북을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우뚝 올려세우시고 인민들에게 만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시고도 마음뿐이라고 그토록 자신을 낮추신 겸허한분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꽃피워주고 미래까지 담보해주는 은인처럼 고마운분은 없다.

그래서 북의 민중은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을 자기들의 운명이고 미래이며 삶의 전부라 부르며 마음의 기둥으로 모시고 산다.

령도자는 민중을 위해 송고한 애민헌신사를 수놓고 민중은 령도자의 사상과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내대는 혈연의 관계, 이것이 바로 세계가 그토록 부러워하고 가지고싶어하는 북의 일심단결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의 민생행보는 애민행보, 헌신행보, 만복행보이며 끊임없는 그 행보속에 령도자와 민중의 일심단결이 더욱 굳건해지고 북은 가까운 장래에 부유강하고 문명하며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로 우뚝 솟아올를것이다.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정치방식이야말로 21세기가 지향해야 할 정치의 본보기라는것이 나의 견해이다.

정진명(재도이칠란드 동포임)

새해신년사에서 올해에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정초부터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가고계신다. 평양가방공장, 김정속평양제사공장과 류경김치공장,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를 련이어 찾으면서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를 길을 끊임없이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평양가방공장을 찾으시어는 자기 자식들의 가방을 만드는 심정으로 가방생산에 정성을 다 바침으로써 맡겨진 본분을 다해가라고 하시었고 김정속평양제사공장의 새로 꾸린 이불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는 인민들속에서 인기가 있는 질 좋은 이불들을 팡팡 생산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었다.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을 찾으시어는 젓갈을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대규모수산물가공기지인것만큼 서해안의 물고기종류와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젓갈품들을 맛있게 만들데 대한 문제로부터 우리 식의 젓갈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도록 명성품을 내놓으며 새로운 젓갈품들을 개발할데 대한 문제,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바로세우고 두뇌진을 잘 꾸릴데 대한 문제 등 공장관리운영과 관련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고 훌륭한 우리의것을 안겨주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사람들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있다. 지난해 1월 김정속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시어 우리가 만든 가방을 메고 웃고 떠들며 학교로 오고갈 학생소년들의 모습을 그려보면 마음이 호뭇하고 즐겁다고 환하게 웃으시던 그이의 환하신 영상을.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방용천생산공정에 갖추어

계 되었다.

지난해 10월 그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우리가 생산한 천과 짜크를 가지고 만든 가방을 안겨줄수 있게 되었다고 그리고 만족해하시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우리의것을 안겨주시려 마음쓰신 그이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속에 가방공장이 태어날수 있었던것이다.

2017년의 첫 대문은...

진 모든 설비들은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창조적인 지혜와 열정이 깃든 명실공히 우리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에 울려 퍼지는 생산장성의 동음소리, 자력갱생의 동음소리는 머지않아 세상만복을 누리며 살게 될 우리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혁명승리의 동음소리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학생용가방천뿐아니라 가방의 작도도 우리의것을 맡수 있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그이께서는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하며 현대적인 짜크생산공정, 델라멘수지제품생산공정 등을 갖추어놓는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었다. 이렇게 되어 짧은 기간에 짜크생산공정이 꾸러지

가방공장에 그득히 쌓여있는 학생용가방들을 보시며 공장이 일떠선지 얼마 되지 않지만 벌써 가방사태, 가방풍년이 들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일떠세운 공장에서의 우리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가방을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별세상에 와본것같은 오늘을 잊지 못할것같다고 하시며 그리고 기뻐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우리의 힘으로 교복과 학습장, 교과서는 물론 질 좋은 가방까지 생산하여 아이들에게 안겨주는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힘겨워도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보니 가슴이 뿌듯해진다고 만족해하시는 그의 영광을 우리러며 온 나라 인민은 인민을 위하시는 그이의 애민헌신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웅심깊은것인가를 체부로 절감

하였다.

송고한 인민관으로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기 위해 경공업공장들을 찾고 찾으시며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시려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헌신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새해 첫 행보는 민생시찰》, 《민생경제행보를 새해 첫 공개활동으로 택하고 자력자강을 강조》, 《련이온 민생경제행보》 등의 내용으로 그이의 새해 현지지도 소식을 상세하게 전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류경김치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제품들이 폭포처럼 쏟아지는것으로 새해의 첫 대문이 열렸다고, 경공업부문에서 일어나고있는 자랑찬 성과를 통하여 인민들은 모든것이 유족하고 문명한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더 깊이 새겨안게 된다고, 올해를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이 기적에서 더 큰 기적을 창조하는 해로 되게 하자고 호소하시었다.

진정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며 인민을 위한 사랑의 자육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불휴의 헌신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2017년이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안아오는 승리의 한해로 빛나게 될것이라는것이 온 나라 인민들이 뜨겁게 새겨안은 믿음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청년강국의 공지를 안고



새해를 맞으며 조국을 위해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앞선다. 지난해에 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참가했다. 조국의 청년대표들과 나란히 대회에 참가한 나는 정말 황송했다. 대회 주석단에 앉아 청중을 둘러보는 나는 청년강국의 주인, 조국의 청년들처럼 나라의 부강변영을 위해 헌신의 땀방울도 바친 것이 없고 애국적기여를 크게 한것도 없었다. 송구함에 마음을 다잡을 수 없었다. 다만 내가 한 것이 있다면 공화국의 해외 공민으로서 동포청년들과 함께 어버이수령님의 항일투쟁사가 깃든 전적지들을 보호하고 더 잘 보존관리하기 위한 일을 한것뿐인데 2012년에는 청년절경축 행사에 참가했고 지난해에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도 참

가한것이다.

바로 조국의 이 크나큰 믿음에는 나뿐이 아닌 전체 해외동포들이 애국의 대, 민족의 대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기대가 담겨져있다고 본다.

그래서 올해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어 조국의 부강변영에 이바지하는 일을 더 많이 찾아할 결심이다.

지금 조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매진하고있다. 다른 나라들처럼 조건과 환경이 좋은 속에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것이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방해책동과 체제속에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에만도 유엔을 내세워 가장 비렬한 제재결의를 두번씩이나 만들어 냈다. 이것은 우리 해외 공민들에게 그 어느때보다도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한몸 바칠것을 요구하고있다.

나는 동포청년들을 비롯한 재중동포들이 조국인민들의 숭결과 박동을 함께 하며 조국의 부강과 통일변영을 위한 의로운 애국활동에 적극 나서도록 자기의 중임을 다해나갈 것이다.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
료병지부 선전국장
한성욱

후대사랑, 인민사랑이 일떠세운 공장

◆ 평양가방공장을 찾아서 ◆

평양시의 통일거리에 일떠선 평양가방공장을 가리켜 사람들은 보배공장이라 부르고있다.

평양가방공장은 자라나는 후대들과 인민들에게 우리의 원료와 자재로 만든 질 좋은 가방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에 의해 솟아난 공장이다.

년간 수십만개의 학생가방과 일반가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이 공장에는 제품컨설트와 재단, 재봉, 포장작업장, 과학기술보급실, 통합조종실, 기술준비실, 도안창작실

을 비롯하여 각종 가방들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제품컨설트에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200여종의 가방컨설트가 전시되어 있는데 하나같이 아이들의 연령심리적특성과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다양하다. 레이저절단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재단설비들이 그쁘히 갖추어진 재단작업장에서는 가

방생산에 필요한 갖가지 재단품들이 생산되며 인쇄작업장과 재봉작업장을 거쳐 포장작업장으로 옮겨지는 모든 가방생산공정이 하나의 흐름선으로 다 진행된다. 또한 공장내의 실정에 맞는 통합생산체계가 훌륭히 구축되어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보다 원만히 할수 있게 되어있으며 기술준비실과 도안창작실도 종합적인 가방생산기지답게

잘 꾸려져있다. 이뿐이 아니다. 공장에는 인쇄작업장과 수직작업장도 갖추어져 있어 가방생산에 필요한 인쇄와 날염은 물론 여러가지 부속품들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

새해 첫 전투를 진행하는 날 공장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가방공장이 일떠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가

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일떠세운 공장에서 우리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가방을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별세상에 와본 것같은 오늘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돌이켜보면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우리가 만든 질 좋고 맛있는 가방을 안겨주려는것이 당의 의도

이라고 하시면서 평양가방공장건설을 발기하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리고 뜻깊은 올해의 현지도로 평양가방공장부터 찾으시고 이 공장은 보배공장이라고, 자기 자식들의 가방을 만드는 심정으로 가방생산에 정성을 다 바쳐가라고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셨으니 진정 평양가방공장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과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절대위인의 후대사랑, 인민사랑이 그대로 깃든 공장이다.

하기에 평양가방공장의 종업원들은 가방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하며 질제고에 큰 힘을 넣어 질 좋은 가방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게 함으로써 어린이들과 학생, 인민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이 뜨겁게 닿게 할 결의에 넘쳐 생산을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얼마전 우리는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안겨주시려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새로 일떠선 평양가방공장을 찾았다.

공장입구에서 우리와 만난 공장일군은 《재단으로부터 재봉, 인쇄, 날염, 완성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들에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현대적인 설비들이 그쁘히 갖추어져있다.》며 재단작업장으로 이끌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가방 만드는 첫 공정인 재단

작업장에 들어서니 레이저 절단기가 각이한 용도의 가방천들을 척척 재단해가는 모습이 경탄을 자아냈다. 알고보니 현대적인 레이저절단기는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것이였다. 용도에 맞게 재단된 가방천들은 자동흐름선을 따라 인쇄작업장과 재봉작업장으로 흘러가고있다. 이곳 공장에서는 재단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이 자동흐름선을 통해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재봉작업장을

거쳐 공장의 《전방사령부》라고 불리는 통합조종실에 들어섰다. 공장에서는 기업자원계획화체계, 생산관리체계, 공정관리체계를 비롯한 생산조직과 경영관리에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 누구나 좋아하는 인기있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겠다고 말하였다.

완성제품창고에는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에 이르는 각종 학생가방들이 천장에 닿을 정도로 가득 차 있었다. 생산을 시작하던 때에 진입할 학생들에게 안겨줄 수많은 가방들을 생산해놓고있다.

국산화된 현대적인 일터에서 각종 가방들이 팡팡 생산되어나오는 광경이야말로 자력자강이 제일임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우리는 멋들어진 가방들을 메고 학교로 오가는 아이들의 행복에 넘친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그려보며 공장을 나섰다.

본사기자 김철호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다품종 새 가방들



평양가방공장의 제품컨설트 본실은 사람들이 맨 먼저 찾게 되는 곳이다. 여기에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200여종에 달하는 가방들이 전시되어있는데 유치원어린이용으로부터 어른용에 이르기까지 그 모양과 형태, 색깔들이 다양

바꾸달린가방들도 있다. 그리고 가방뒤면에는 학생소년들의 연령, 심리적특성에 맞게 만화영화들이 《소년장수》, 《다람이와 고슴도치》 등에서 나오는 그림들도 새겨져있다. 그런가하면 자루식, 멜식으로 된 천가방들과 합성가죽으로 만든 다양한 형태의 녀성 및 남성용 가방들도 있는데 하나같이 그 모양과 형태, 색깔이 특색이 있다.

이 모든 제품들이 그대로 어린이들과 학생, 인민들에게 가닿게 된다니 볼수록 호뭇한 풍경이였다.

본사기자

자력자강의 힘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자체로 개발하고 생산을 높이는 수준에서 활성화해나가고있다.

우리는 도안창작실도 찾았다. 이곳에서 우리와 만난 김남혁실장은 가방들의 천무늬도안, 장식도안, 그림도안, 가방형태도안들을 창작하고있다, 가방생산의

인쇄작업장에서는 아동영화 《소년장수》, 《나비와 수탉》, 《다람이와 고슴도치》, 《령리한 너구리》 등에서 나오는 동심에 맞는 장면들이 가방천들에 새겨지고있다. 공장에서는 가방생산에 필요한 망사와 조절고리, 수지박판, 부속자



얼마전 공화국에서는 김정은평양제사공장 로동자합숙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고 만사람의 축하속에 합숙생들이 입사하였다. 7층으로 된 합숙건물에는 로동자들의 생활상편의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침실, 대중식사실, 생일식사실, 체육 및 오락실 등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있다.

안팎으로 멋쟁이인 보금자리에 들어서는 합숙생들은 평범한 로동자들을 위해 베푸는 공화국의 은덕이 나무 고마와 북받치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딸의 새집들이를 보려고 먼 곳에서 달려온 부모들도 새 합숙을 돌아보고는 로동자합숙이 아니라 로동자호텔, 로동자궁전이라고 연방 감탄하였다.

책꽂이, 옷장은 물론 녀성들이 연지경지로 단장하며 좋아할수 있게 편대까지 일식으로 갖추어진 방들과 녀성로동자들을 기다리며 활짝 문을 열어놓은 편의봉사기지 진달래원, 체육 및 오락실 등 곳곳마다 사회주의문명을 누리게 된 로동자들의 기쁨이 한껏 흘러넘치고있다. 그들의 모습을 보느라 새해벽두에 이 공장을 찾았으며 공장종업원들이 새로 건설된 합숙을 세상에 돌도 없는 로동자들의 궁전, 호텔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로동자들을 위한 이런 희한한 건축물은 로동계급의 세상인 우리 나라에서만 일떠설수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을 돌아보시었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안겨온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지만 공화국에서처럼 로동자들을 가장 값높이 내세워주고 육친의 정

◎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조선의 키동한것 (14) ◎

로동자호텔, 로동자궁전

으로 따듯이 보살피려는 나라가 그 어디에도 없다.

《사실 우리 어머니는 날 보고 빨리 시집을 가라고 독촉하곤 했습니다. 이유는 아무리 합숙이 좋다 해도 제 집에서 생활하는것만 하겠느냐 하는겁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 일떠선 우리 합숙에 와보고는 이런 훌륭한 집이 어디에 있겠는가고, 더 많은 천을 짜라고 당부하시는게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지금으로부터 3년전인 2014년 5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에 입사하며 하던 한 직포공처녀의 말이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로동자합숙,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만이 아니라 평양 326전선공장의 명명원을 비롯하여 강성원 등 공화국의 각지에는 로동자들의 생활을 위해 수많은 자금을 아낌없이 들여 만든 희한한 건축물들이 많다.

어느 한 나라의 잡지에는 사람이 자신의 로동력을 팔아 임금을 받는 이유는 쓸수 있는 보금자리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인간의 존엄있는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쓴 글이 있다. 그렇다면 공화국의 도처에 일떠서고있는 희한한 건축물들이 로동자들의 로동의 대가로 차례진 보금자리인가.

로동자들을 위해 훌륭한 합숙들과 편의봉사기지들을 건설해주고 성대한 로동자연회도 차려주고있다.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로동자들을 위해서는 수지타산도 하지 않고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희한한 모든것을 안겨주는것이 로동당의 정치로 되고있다.

세상에는 로동자들의 고향을 짜내어 극소수 재벌들이 향락을 누리는 궁전과 호텔은 많아도 이런 로동자호텔, 로동자궁전은 오직 공화국밖에 없으며 로동자연회라는 말도 이 나라에서만 들을수 있는 말일것이다.

이번에 새로 일떠선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로동자합숙도 로동자들을 위해 세상에 태어난 사랑의 궁전이고 행복의 집이며 정다운 보금자리이다. 그러나 자신의 로동력을 아무리 강리 팔아도 보금자리는커녕 인간의 존엄조차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헤아릴수 없이 많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살인적근무시간에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로동자들은 《로동이 서러운 벼랑끝인생》이라며 자포자기의 삶을 살고있다. 한지맥을 이은 남조선의 로동자들도 그런 불행한 처지에 놓여있다. 수십명의 희생자를 낳은 쌍용자동차문제, 전북베스도모자의 투신사건, 통산참사문제...

지난해 5월에는 서울 지하철에서 19살 비정규직로동자청년이 참변을 당하였다. 불에 발그레함도 사라지지 않았을 나이에 가방에 넣고다니는 죽석

이 우선적으로 희생되는 일은 달라지지 않을것이다.》... 이런 웨침이 남조선각지에서 울려 퍼지고있다.

그렇다면 남조선에서 로동자는 어떤 사람인가.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조사기관이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로동자》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눈길을 끌었다.

《로동자는 □다.》는 질문을 던지고 □에 답을 적어넣는 방식이었는데 가장 많은게 《힘들다》였다고 한다. 이밖에 《거지》, 《장애인》이라는 답변도 있었고 《일개미》, 《돈버는 기계》, 《강철인간》, 《두이 없다》는 응답도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남조선사회의 적나라한 거울이다. 얼마나 로동자들이 고생과 학대를 받고있는가. 아이들이 이런 대답을 하겠는가.

《능력없으면 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모자란 애들 상대하기 더러워.》라고 인터넷에 올린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가 쓴 글은 99%의 근로하는 서민들을 개, 돼지로 인식하는 1% 특권층들의 인식을 낱알이 밟아놓았다.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다 로동의 결과이다. 로동이야말로 가장 신성한 일이고 로동자들은 사회가 웅망 내세우고 보살피주어야 할 주인들인것이다.

그러나 고금동서에 공화국에서처럼 로동자들의 삶이 곱높고 빛난적이 있었는가. 하기에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돌아본 한 외국인인은 감상록에 《로동자호텔, 로동자궁전, 로동자연회... 귀에 설고 처음 들어보는 이 말들을 곱씹어 되뇌일수록 로동자들을 위한 공화국의 정치에 감복을 금할수 없다.》라고 썼던것이다. 참으로 근로하는 인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몇몇이 내세워주고 국가가 궁전같은 집들을 지어 로동자들에게 안겨주는 공화국이야말로 세상이다 돌도 없는 로동자들의 세상이다.

본사기자 리철민



돌팔이 《대통령》의 4년

대한(20일)도 지났으나 1월의 날씨는 여전히 춥다. 하긴만 남조선에서는 이런 추위에도 박근혜 탄핵의 초불이 줄기차게 계속 타고오고있다.

뜨뜻한 온풍기바람을 쐬며 아직도 청와대의 골방에 박혀있는 박근혜는 강추위속에서도 타고오르는 분노의 초불을 열두번재나 보았을것이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한갓 선무당에 불과한 최순실에게 떠넘기고 그가 하라는대로 《국경》을 봉단하며 갖은 악정을 저지른 박근혜는 지금 초불바다에서 울리는 저 분노의 함성을 가슴에 새기고나 있을가.

전혀 그렇지 않다. 《대통령》직무를 정지당하고 오늘래일 쫓겨나 감옥에 가야 할 처지에도 《헌법재판소》의 변론에는 출석하지 않고 그대도 설날이라고 모여앉아 히히덕거리며 떡국이나 먹고 기자들을 불러 억울함을 호소하는 회견이나 벌려놓고...

박근혜와 떡국조찬회에 참석한 청와대참모들은 서로 동정과 위안의 체온을 느꼈을것이다. 헌데 그 보도를 보면서 남조선인민들이 느끼는 심리적체온은 몇도쯤 되었을지 짐작이나 해볼수 없을가.

더우기 기자들앞에서 2014년에 벌어진 《세월호 참사》를 작년인지, 재작

년인지 일어난 사건이라고 중얼거리고 자기의 모든 죄과들을 부정하느라 정신없는 박근혜의 꼴을 보면 《정신나간 로친네 죽은 딸네 집 다니듯》이란 조선속담이 절로 떠오른다. 오죽하면 남조선의 한 어학전문가가 박근혜의 담화법은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괴상망측하다. 습관적으로 말을 지어내는 특징이 있다고 평하였을가.

한번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정말로 만들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고 자꾸 하다보면 나중에는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조차 모르게 된다. 습관적으로 말을 지어내는것은 돌팔이들의 기질이다.

왜서인가? 전문실력을 못갖춘 자기의 정체를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서이다. 그리고보면 박근혜야말로 완전사기꾼, 돌팔이에 지나지 않는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어찌나 저런 돌팔이한테 우리의 운명을 맡겼을가 하는 분노에 치를 떨고있다. 돌팔이 《대통령》이니 주위에는 맨 돌팔이들뿐이다.

미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국민들은 박근혜가 돌팔이

(quack)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믿는다.》고 보도했다.

최순실이 누구인가? 남조선인민들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도, 공무원도 아니다. 한갓 돌팔이무당에 불과하다. 그 돌팔이 명색이 《대통령》인 지라 《실력어 쟁쟁》한 청와대의료진을 곁에 두고있으면서도 그들은 멀리하고 한사코 《비선진료》만 받아왔다. 그 나이에 얼굴 팔아먹고 살려는지 《대통령》이 성형수술에만 관심을 가지고 청와대에 끌어들이는것만 하나같이 무자각자들이다.

《주사아줌마》, 《기치로야아줌마》, 《얼굴결락아줌마》... 그중 73살의 《주사아줌마 백선생》은 상습적으로 불법수술을 하다가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살이까지한 전과자라고 한다.

돌팔이의사들한테서 치료받다보니 얼굴을 객주집 칼도마처럼 만들어놓아 가뜰이나 귀밀같은 눈은 통통 부어 정사는 돌보지 않고 침실에만 박혀있을수밖에 없었다. 돌팔이들한테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말은 그럴듯 하지만 하나같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후과는 매우 치명적이라는

말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가려 하는 공화국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하지만 남조선정계인

대로 박근혜정치는 돌팔이정치였다.

정치만 돌팔이정치를 한게 아니다. 치료도 돌팔이의사들한테서만 받아 비난과 조소를 받고있다.

명색이 《대통령》인 지라 《실력어 쟁쟁》한 청와대의료진을 곁에 두고있으면서도 그들은 멀리하고 한사코 《비선진료》만 받아왔다.

그 나이에 얼굴 팔아먹고 살려는지 《대통령》이 성형수술에만 관심을 가지고 청와대에 끌어들이는것만 하나같이 무자각자들이다.

《주사아줌마》, 《기치로야아줌마》, 《얼굴결락아줌마》...

그중 73살의 《주사아줌마 백선생》은 상습적으로 불법수술을 하다가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살이까지한 전과자라고 한다.

돌팔이의사들한테서 치료받다보니 얼굴을 객주집 칼도마처럼 만들어놓아 가뜰이나 귀밀같은 눈은 통통 부어 정사는 돌보지 않고 침실에만 박혀있을수밖에 없었다.

돌팔이들한테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말은 그럴듯 하지만 하나같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후과는 매우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돌팔이무당의 처방대로 력사교과서 《국정화》와 《싸드》배치를 강행하고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관련한 《합의》라는것도 급작스레 만들어내 온 남녘이 시골벽적이고 분노에 찬 규탄의 목소리가 끊없이 메아리치고있다.

약속했던 《복지》는 《대통령》선거 그때뿐이였고 인민들의 혈세는 《복채》(점용 처준 값으로 점쟁이에게 주는 돈)로 써버렸다.

청년취직이 락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워지니까 《중등으로 가라.》는 돌팔이처방을 내리고 《간절히 원하는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환장할 말만 외워댄 박근혜이다.

그런 돌팔이가 갖은 음모와 협잡, 애비의 후광

다.》는 돌팔이무당의 말을 믿고 동족대결에만 매달려 북남관계를 깨개 망쳐놓아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의 대상이 되었다.

원래 박근혜는 《대통령》은 고사하고 《국회》의원이 될 재목도 아니었다.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를 겨냥하여 《돌팔이집수리공이다. 돌팔이집수리공에 속아서 5년동안 집수리를 맡겨서는 안된다.》고 비난했었다.

다른 한 정치인은 박근혜가 제시한 《대통령》선거공약들을 가리켜 《돌팔이외과의사의 처방》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그런 돌팔이가 갖은 음모와 협잡, 애비의 후광

으로 권력을 손에 쥐고 지난 4년간 《대통령》 행세를 해왔으니 남조선의 정치와 사회의 모든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오늘에 와서 《이게 나라냐.》라는 대중적원성이 터져나오는 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돌팔이의사는 상대하는 몇사람을 죽이는것으로 그치지만 돌팔이가 《대통령》이면 수많은 사람이 불행을 당하고 죽어가게 된다. 박근혜가 《정치》하는동안 남조선이 《망한민국》으로 되고 《세월호》의 수백명 아이들을 비롯하여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겼듯이 우연한것이 아니다. 《침》을 아픈 부위의 혈이 아니라 엉뚱하게 심장이나 간에 찔려 생사사람들을 죽이고 민생을 통째로 지옥의 나락에 처박은 집권 4년이 되어오는 박근혜의 최악은 천추를 두고 용서받을수 없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새해정초부터 공화국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며 민족이 뜻과

친미사대경쟁은 수치와 파멸의 길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있다.

지난 18일 평양에서 열린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인합회의에서 조선민족의 강대한 힘과 드높은 통일의를 총분출시켜 자주통일의 대토로를 기어 일어나갈것을 전체 조선민족에게 호소할 호소문을 발표한것만 놓고보

아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가려 하는 공화국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하지만 남조선정계인

이 력사의 진리를 망각하고 아직까지도 미국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온 겨레는 두고두고 사대매국노, 민족반역자라고 침을 뱉을것이다.

남조선에서 정치를 한다는 인물들은 민족내부문제, 북남관계문제까지외세인 미국에 내맡기는 그들의 어리석은 굴종행위가 어떤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빚어내겠는가 하는데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이제라도 처신을 바로 해야 할것이다.

김주혁

물들이 동족의 이성의

와 아량, 노력은 외면하고 바다건너 머나먼 미국상전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비굴한 추태를 부리고 있는것은 초보적인 자존심도 없고 민족의 존엄에 먹칠을 하는 행위가 아닐수 없다.

지나온 인류사를 돌이켜보면 자기의 힘을 믿지 못하고 외세에게 빌붙고 매달려 운명문제를 풀려고 한 나라와 민족들은

말미암아 새해에 들어와서도 여러가지 외교적마찰과 고립이 심화되어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호미난방에 빠져있다.

남조선민심은 사회를 극도의 혼란이 지속되는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만 비유하면 장본인이며 특대형범죄자무리인 보수집권세력에게 끝없는 저주와 규탄을 보내고있다.

《안보위기》를 고취하여 저들에게 쏘리는 성난 민심의 눈초리를 다른데 돌려보려는것은 남조선보수당국의 상투적인 위기요령책이다.

이로부터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새해벽두부터 명개 하나 살아보려고 발

악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사회 각계에서는 군부호전광들의 이러한 망동을 두고 《박근혜탄핵정국을 흔들어보려는 속내가 깃든 행위》, 《전쟁을 불러오는 무분별한 망동》, 《북의 보복을 자초하는 자멸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고있다.

본사기자 황진옥

며칠전 남조선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미국대통령취임식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으로 날아갔다 한다. 그보다 앞서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차장, 외교부 차관들이 떼를 지어 미국으로 물러가서 미국의 새 행정부 인사들에게 《얼굴도장》을 찍고 《북핵공조》와 《동맹강화》를 구걸했다. 또 《대통령》권한대행인 황교안이 새 미국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낸다고 분주함을 피우는 등 지금 남조선정계에서는 《친미사대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있다.

이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자는 동족의 선의는 뿌리치고 우리 민족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침략과 략탈의 원흉인 미국에 빌붙어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친미사대매국노들의 비굴한 추태라고

말할수 없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새해벽두부터 전쟁광기를 부려대며 무력충격행동에 매여달리는 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여기에는 군사적긴장과 전쟁소동으로 《안보위기》를 고취하여 제명을 다 산 송장같은 보수세력의 살길을 찾아보려는 미련한 속궁냥이 있다.

지금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가련한 신세이다.

지난해 남조선에서 대중적인 친미항쟁을 불러일으킨 특대형정치추진부사건인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으로 하여 남조선정치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버렸다. 또한 박근혜의 극악한

긴장격화를 몰아오는 호전광들의 망동

살길을 찾는 광신자들의 말발적책동은 새해에도 계속되고있다.

최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있지도 않는 《북핵 위협》과 《국지도발》을 운운하며 가뜰이나 첨예한 조선반도정세를 더욱더 긴장시키고 《안보위기》를 조성하려고 광분하고있다.

남조선군부가 흑한기야외전술훈련을 벌려놓는데 이어 그 무슨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목밑에 해군의 작전수행능력을 높이고 막대한 혈세까지 바쳐가며 미국으로부터 보수세력의 공격형적수기를 끌어들이려고 하고있는것은 이를 말해주는 단적인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동족대결과 사대매국행위로 말미암아 새해에 들어와서도 여러가지 외교적마찰과 고립이 심화되어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호미난방에 빠져있다.

남조선민심은 사회를 극도의 혼란이 지속되는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만 비유하면 장본인이며 특대형범죄자무리인 보수집권세력에게 끝없는 저주와 규탄을 보내고있다.

《안보위기》를 고취하여 저들에게 쏘리는 성난 민심의 눈초리를 다른데 돌려보려는것은 남조선보수당국의 상투적인 위기요령책이다.

이로부터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새해벽두부터 명개 하나 살아보려고 발

때질을 할수록 조여드는 울가미

라는 리유로 《헌법재판소》의 변론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것을 거부해온 최순실이 지난 16일에 진행된 5차변론재판에 급작스레 출석하여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못해 《검찰과 특검의 강압수사에 죽을 지경이다.》고 오히려 제편에서 양탈을 부리며 뻔뻔스럽게 놀아대었다.

참으로 가련한 생떼질이 아닐수 없다. 이미 폭로된것처럼 박근혜, 최순실사건으로 불리우는 이번 특대형정치추진부사건의 진상은 모두 더 론박할 여지도 없이 드러났다. 죄과도 명백하고 증거도 철저하다. 그 처지에 자꾸만 폐질을 해보았댜자 숨통을 끊을 올라미만 더 조여질뿐이다.

그래도 한가닥 죄의식이라도 남아있어 속속죄나 참회를 한다면 박근혜가 울며 겨자먹기로 살구멍을 찾아보겠다고 직접 나서는것이다.

한편 형사재판증이

거칠 줄 모르고 더 세차게 타고오르는 남조선초불민심을 보면 잘 알수 있다.

지난 14일 서울에서 만도 10여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조선의 전지역에서는 12차초불투쟁이 진행되었다. 박근혜의 즉각탄핵을 관철하기 위한 13차박근혜퇴진초불투쟁도 전개된다 한다. 박근혜의 집권 4년이 되는 2월 25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초불대회가 진행될것이라고 한다.

2017년에는 《시민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광장의 민가 관철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것이 초불민심이다. 티끌만한 죄의식도 느낄줄 모르는 파렴치한들은 엉당한 징벌을 받아야 한다. 초불민심의 드세찬 열기로 박근혜와 최순실을 휘감는 징벌의 울가미는 지금 시시각각으로 조여들고있다. 본사기자 김련옥

왜 더 퍼그 《제2의 박근혜》

남조선인민들이 반기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무지무능한 박근혜를 련상케 하여 《제2의 박근혜》라고 비난하고있다. 몇가지 실례를 들어보자. 18일 광주를 찾아 《광주와 호남은 민주주의의 원산》이라고 하던 반기문은 《리명 박근혜정부》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답도 안하고 떠났다고 한다. 앞서 17일에는 경상남도 거제시의 옥포조선소를 찾아서는 《대우조선해양을 《대우해양조선》이라고 몇번이나 거꾸로 불러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집권첫해 5.18기념식에 참가하여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하고서도 《님을 위한 행진곡》조차 부르지 않았고 기자들의 질문에 《어버버》하며 황당한 대답을 하던 박근혜를 방불케 하는 것이었다. 또 팽목항의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을 만나서 《세월호 인양에 대해 《정부》를 믿으라.》고 말한것은 진상을 밝혀달라던 유가족들

에게 《자기를 믿으라.》던 박근혜 그대로였다. 그외에도 충청북도의 방역현장에서 위생복도 안 입었던것, 음성 꽃동네에서의 《력박이》문제 등 반기문의 많은 말과 행동이 서민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박근혜를 신통히도 닮은것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조소와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말과 행동만이 아니다. 반기문의 동족대결관념은 박근혜와 너무도 똑같다. 《〈싸드〉는 순수하게 방어용이다. 공격용이 아니다.》, 《〈한〉 반도현실이 준전시상황이기때문에 〈싸드〉 배치는 마땅하다.》 이것은 지난 17일 반기문이 조선대학교의 강연이라는데서 한 말이다. 첫 지방일정으로 경기도 평택에 가서는 《천안호를 보고 《침몰원인이 폭침이 분명하다.》》느니, 《〈천안〉 함격피사건 같은것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안보태세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등의 동족대결의식을 드러냈다. 그런가 하면 《북핵문제에 조차 부르지 않았고 기자들의 질문에 《어버버》하며 황당한 대답을 하던 박근혜를 방불케 하는 것이었다. 또 팽목항의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을 만나서 《세월호 인양에 대해 《정부》를 믿으라.》고 말한것은 진상을 밝혀달라던 유가족들

대결광기가 지금이야 표현된것은 아니다. 유엔사무총장시절에도 《대북제재결의안》, 《북인권결의안》 조작성동에 앞장서면서 미국의 반공화국제압살책동의 하수인노릇을 했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또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일본과의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 등을 지지해주면서 민족문제해결에 훼방질만 해온 반기문이다. 민족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친미사대매국노, 동족대결광인 반기문이 머리를 뺏뺏이 쳐들고 《대통령》 자리를 넘겨다보며 남조선을 돌아치고 있는것은 그 자체가 꼴불견이다. 《싸드》문제니, 《안보》니 반기문의 입에서 북남관계에 대한 말이 떨어질 때마다 박근혜와 다를바 없는, 박근혜에 짝지 않는 대결본색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렇지 않아도 북남관계는 박근혜로 하여 최악의 최악으로 변한 지금의 현실에까지 오게 되었다. 박근혜와 똑같은 반기문과 같은자들이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를 바라는 남조선민심과 겨레의 지향에 또다시 얼음물을 들뜨우려고 날뛰고 있다. 《제2의 박근혜》, 반기문과 같은 친미사대매국노, 동족대결광들의 행동에 결코 방심해서는 안될 오늘의 시국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똑같은 부패의 왕초

넘불에는 관심이 없고 재빠에만 정신이 팔린다고 민심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반기문이 박근혜와의 《차별화》로 자기의 인기를 올려보겠다고 무진애를 쓰고있다. 지난 18일 광주의 어느 한 대학에서 반기문은 《〈광장의 민심〉으로 대표되는 국민의 좌절과 분노는 《대통령》이 다 책임져야 한다.》며 박근혜를 비난하였다. 이머리를 뺏뺏이 쳐들고 《대통령》 자리를 넘겨다보며 남조선을 돌아치고 있는것은 그 자체가 꼴불견이다. 《싸드》문제니, 《안보》니 반기문의 입에서 북남관계에 대한 말이 떨어질 때마다 박근혜와 다를바 없는, 박근혜에 짝지 않는 대결본색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렇지 않아도 북남관계는 박근혜로 하여 최악의 최악으로 변한 지금의 현실에까지 오게 되었다. 박근혜와 똑같은 반기문과 같은자들이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를 바라는 남조선민심과 겨레의 지향에 또다시 얼음물을 들뜨우려고 날뛰고 있다. 《제2의 박근혜》, 반기문과 같은 친미사대매국노, 동족대결광들의 행동에 결코 방심해서는 안될 오늘의 시국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사실만 들여다보자. 지난해 9월 중순 뉴욕을 행각중이던 박근혜를 7면이나 만난 반기문은 그후인 9월 26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새마을운동〉 고위급특별행사》라는데서 개회사를 통해 유엔사무총장자격으로 《새마을운동국제화》에 앞장서며 《아프리카와 아시아지역에서 〈새마을운동〉이 산을 불처럼 번지고있다.》느니 뉘니 하며 《유신》독재자와 그 후예를 극구 추어올렸다. 반기문의 《박비어천가》는 박근혜가 데서도 《국민은 지배구조가 완전히 결핍된것에 몹시 좌절하고있다.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있다.》며 박근혜를 비난한 반기문이다. 반기문의 박근혜에 대한 비방은 결코 역도년이지지 않는 파쇼독재와 사대매국, 반인민적악정에 대한 환멸감에서 우러나온것이 아니다. 박근혜를 파멸로 몰아넣으려는 초불민심을 리용하여 《대통령》 자리를 차지해보겠다는 반기문의 얄은 술수가 바로 《박근혜 매리기》라는 기만극이다. 그러나 정치간상배의 서툰 술수에 속을 민심이 아니다. 그것도 그럴것이 멀지 않은 과거에 유엔사무총장으로서 반기문이 박근혜에게 바친 《최상의 레우》와 《박비어천가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남조선민심이기때문이다. 몇가지

수실부정추문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반기문이 박근혜의 지지밑에 《새누리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리라는 사실에 의문을 가지지는 정치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당하여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하자 반기문은 순간에 변신하여 《박근혜색갈지우기》를 하는 한편 비박계에 추파를 던지었다. 사실상 반기문은 정치인이라기보다 금전밖에 모르는 돈벌레, 수전노이다. 반기문이 외교부 장관시절인 2005년 당시 태평양실업회장으로부터 뭉치돈을 받아먹고 수염을 빼냈는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이뿐아니라 전 경남기업회장으로부터도 엄청난 정치자금을 받아먹은 사실이 언론들을 통해 여론화되어 민심은 당장 검찰수

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판이다. 유엔사무총장이라는 직함을 팔아 아들과 둘째딸, 사위의 직업에 특혜를 요구하고 동생, 조카가 사기죄물행위를 하여 미국검찰에 기소되는것 등 반기문의 친인척들도 따지고보면 모두 하나와 같이 부정부패분자들이다. 반기문이 걸어온 추악한 행적은 그역시 박근혜와 같고같은 정치간상배이고 사리사욕에 환장한 부정부패의 왕초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기회주의자 반기문은 이름과 결만 다를뿐이지 속은 사대와 매국, 동족대결에 광분하면서 파쇼폭압과 금전에만 눈이 새빨강계 돌아간 전두환이나 로태우, 김영삼이나 리명박, 박근혜와 같고같은 인간추물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철부지도 속지 않을 궁여지책

16일 남조선 《국무총리》라는자는 그 무슨 《대책 회의》라는데서 《현재의 전방위적외교압박의 틀을 활용해 북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느니, 《추가적도발이나 기만적대화공세가 능성도 제시되고있다.》느니 뉘니 하며 열도당도 않은 수작을 늘어놓다 못해 《북핵문제 등 필요한 분야의 국제공조지속》과 《관련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고아했다. 한마디로 이것은 극악한 동족대결행동이 초래한 전대미문의 대외적고립과 굴욕을 모면해보려는 박근혜역적패당의 발악적망동이며 특대형추문사건으로 인한 보수 《정권》의 마비상태를 가리워보려는 어리석은 추태

에 불과하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극악무도한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하여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고립상태에 빠져있다. 《싸드》 배치문제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역적패당은 《싸드》를 끌어들이 남조선을 미국의 전략적리익실현의 공간으로, 그 희생물로서 숨없이 내맡김으로써 상전의 환심을 사고 그와의 군사적공모결탁을 강화하여 북침야망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 자주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분노와 규탄을 자아내고있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주변

나라들은 《남조선의 〈싸드〉 배치를 선전포고로 생각하겠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 《첫번째 핵타격대상이 될것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남조선의 〈싸드〉 배치는 동북아평화보장의 리익을 추구하다 제 목숨을 끊는 우둔한 꿈과도 같은 자멸행위》라고 하면서 규탄과 조소를 보내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도 《하나만 보고 돌을 볼줄 모르는 청맹파니 결정위.》 《권력층 몇놈을 위해 국민모두가 죽어야 한다는 강도적계변》, 《국민모두가 밖으로부터 핵파녀이 된 현실》이라고 개탄하면서 《싸드》 반대투쟁을 강도높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명성

《국어시간이면 반공운동대회, 반공글짓기대회, 반공포어짓기대회를 치르고 미술시간에는 반공포스터, 음악시간에는 반공노래자랑을 했고 체육시간에는 반공마라톤대회에 나가 뛰어야 했다.》 《해마다 해빛이 뜨거워지면 6월이 되면 상상이 허락하는 모든 가능성을 동원해서 머리에 뿔이나 우리를 잡아먹는 괴물네 모습으로 북한군그림을 그리고 20자원고지에 그 괴물을 어떻게 무찔러야 할지 써내곤 했다.》 이것은 리승만 《정권》시대와 《유신》독재시기에 강요된 《반공교육》에 대해 체험자들이 쓴 글의 일부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가슴벅찬 6.15통일시대에 남조선인민들은 북녘의 동포들이 《머리에 뿔이 나고 얼굴

이 새빨간 괴물》이 아니라 새것을, 생김새는 물론이고 언어도 력사도 풍습도 똑같은, 마음이 통하고정이 통하는 한민족, 한겨레라는것을 절감하였다. 그러던것이 보수 《정권》이 등장하면서 우리 민족끼리는 사문화되고

이 새빨간 괴물》이 아니라 새것을, 생김새는 물론이고 언어도 력사도 풍습도 똑같은, 마음이 통하고정이 통하는 한민족, 한겨레라는것을 절감하였다. 그러던것이 보수 《정권》이 등장하면서 우리 민족끼리는 사문화되고

역할》을 하였고 따라서 《북핵, 미사리위협》에 대처하자면 《〈한〉 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것을 《교육》내용에 더 포함시키겠다고 한다. 미국과의 《동맹》이라는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남조선인민들에게 가져다 준것이 무엇인가. 상전과 주구의 관계를 가리우는 간판, 미국의 대조

《나라사랑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과거 독재시대에 횡행했던 《반공교육》이 다시 성행하여 동족대적시의 기류가 흐르게 되었다. 《반공교육》은 한피줄을 이은 동족은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이고 외세인 미국은 《혈맹》이라는 황당하고 모략적으로 가망된 날조와 미화분식으로 꾸며어진것들이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조선반도주변국들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그 나라들과 다방면적인 교류를 하면서도 유독 동족을 《최대의 주적》으로 짚어놓고 《반공, 숭미사대교육》에 열을 올려왔다. 공화국은 상대방을 자극하는 온갖 비방중상과 모략중상, 적대행위들을 지체없이 중지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자고 호소하였다. 하지만 남조선보수당국은 새해벽두부터 동족의 선의의 호소에 《나라사랑교육》이라는 《반공교육》과 전정연습중상, 무력중상으로 대담하고있다. 미국의 《동맹》은 남조선의 《전쟁억제와 경제발전, 민주화실현의 핵심

선적대시정책실현을 위한 종적결탁, 미국을 등에 업고 보수집권을 유지, 연장하기 위한 미사리구가 바로 걸만 화려한 남조선미국 《동맹》이다. 즉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할수 있는 식민지주종관계에 면사포를 씌운것이다. 민족분열의 원흉과 《동맹》은 종지만 동족과의 화해와 통일은 절대로 안된다는것이 남조선친미보수집권세력이 추구하는 《나라사랑교육》이고 그들의 비뿔어진 동족판이다. 《나라사랑교육》이라는것은 남조선인민들속에 동족대결, 반통일, 숭미사대의 더러운 비루스를 전파시키는 보수세력의 매개물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북과 남의 화해와 통일을 바란다면 《나라사랑》의 외피를 쓰고 벌어지는 보수세력의 《반공》, 숭미, 친미사대의 궤변을 가려들어야 한다. 민족의 운명과 발전은 미국과의 《동맹》에 있는것이 아니라 겨레의 화합과 통일에 있다. 김소영

《국제관계》 타령, 과연 가랑한가

《국제관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남조선의 부산에 있는 일본총영사관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한 말이다. 누구의 말인가. 특대형인권범죄를 저지르고도 눈섭 하나 까딱 안하는 일본에서 나온 소리라면 과립치성과 저렬성에 다시한번 침을 뱉았을것이다. 하지만 아니다. 《평화의 소녀상》설치에 《합의》를 내걸고 일본이 발간하자 남조선의 외교부 장관이라는 윤병세가 한 소리다. 자주성과 평등, 호상존중을 기본으로 하는것이

자존심은 다시한번 유린당했다. 그 《합의》에 윤병세가 도장을 찍었다. 이제는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일본의 대변자가 되어 나

《을사5조약》과도 같은 매국배족의 문서에 감히 도장을 누르지 못했것이다. 《국제관계》를 운운하며 백년속적의 장단에 춤추지 않았을것이다. 윤병세는 일신의 영달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서슴없이 팔아먹은 《을사5조약》과 한바리에 실어도 짝지 않는다. 이런 친일매국노가 외교부 장관을 하고있으니 오늘은 백년속적의 죄과를 무마해주는 《합의》에 도장을 찍고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췌했다면 매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장담할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의 팔다리가 되어 《구걸외교》, 《굴종외교》, 《거지외교》만 해온 어지러운 행적으로 윤병세는 남조선인민들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국제관계》나 운운하며 백년속적의 앞잡이로 계속 남아있었다면 자기의 죄과만 더 불어나게 되고 명을 다한 박근혜와 더불어 형을 재촉하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혜성

은 정 차 향 기 넘 친 다

인체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물질을 보충해주고 물질대사를 촉진시켜 정 신육체적피로를 풀어주며 유기체의 활동능력을 높여주는것으로 하여 예 로부터 《불로장수의 명 약》으로 불리워온 차는 사람들의 건강에 매우 좋 은 음료이다.

그래서인지 차향기가 그윽하게 풍기는 차전거 리에 위치한 은정차집은 언제보아도 차를 마시는 사람들로 흥성이다.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에 은정차집에 들러 차를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고 쌓였던 피곤도 풀리는것 같으며 이곳을 자주 찾는 단골손님들이 적지 않다. 은정차를 마시는 사람들 마다 《건강음료로서 은 정차이상 없는것 같다. 한때 혈압과동이 심해 고 생했는데 은정차를 마시 면서 혈압이 펴 안정되었 다.》, 《내 나이 일흔살 이 넘었지만 은정차를 마 시면서 혈기가 왕성해졌 다.》라며 뉘뉘니해도 은정차가 제일이라고 이 구동성으로 입을 모은다. 김미영 (45살) 은정차공

급소 소장의 말에 의하면 이곳 차집에서 봉사하는 차들의 맛과 향기가 독특 한데다가 차잔과 차잔받 치개들도 차의 종류에 따 라 각이하여 손님들이 좋아한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 차문화 는 세나라시기에 생겨났 다. 고려시기에 차는 사 람들속에서 널리 애용되 었다.

차잎가공은 예로부터 품이 많이 드는것으로 알 려져있다. 차 1kg을 생산 하는데 차잎을 수만개, 지 어 10만개정도 따서 가공 해야 한다.

차는 가공방법에 따라 록차와 홍차로 갈라진다. 록차는 발효시키지 않은 것이고 홍차는 발효시 켜서 만든것이다. 은정차 집에서 봉사하고있는 강 령록차와 홍차에는 코페 인, 탄닌, 비타민C, E 등이 많이 들어있어 심 근경색, 고혈압, 동맥경 화를 예방하고 피로회복 과 리노, 해독, 항암치료 에 효과적일뿐아니라 로 화를 방지하고 머리를 맑 게 해주는데 효과가 있다 고 한다.

이곳 차집에서는 록차 와 홍차외에도 인삼차, 보리차, 메밀차, 강병이 수염차 그리고 철관음차 도 봉사하고있다.

특히 차잎을 차잔에 넣 을 때 《딸그랑-》하고 작은 쇠판덩어리가 차잔 에 떨어지는것 같은 독특한 음향이 귀맛좋게 울리 는 철관음차는 록차나 홍 차와 달리 반발효음료이 다.

홍차보다 생산량이 많 아 경제효과가 큰 철관 음차는 다른 차들에 비해 향기로울뿐아니라 심장활 동을 좋게 하고 정신을 맑 게 해주며 미안효과가 큰 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인 기를 끌고있다.

은정차에는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 러는 절세위인들의 숭고 한 사랑의 세계가 뜨겁게 어려있다.

김미영소장은 원래 더 운 지방에서 자라는 차 나무는 북위 36° 이북지 역에서는 재배할수 없는 것으로 되어왔다. 하지 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참대가 잘되는 곳에서 차 나무가 잘 자란다고 하시 며 황해남도 용진군과 강

원도 고성군에서 차를 재 배하도록 하시었다고, 공 해가 없는 우리 나라에서 질좋은 차를 생산할수 있 는 전망이 매우 밝다고 이 야기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펼쳐 주신 차나무재배의 새 령 사의 위대한 장군님의 정 령적인 령도에 의하여 더 욱 활짝 꽃피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도 사연깊은 차 나무재배와 관련한 연 구사업을 더욱 활성화 해나가도록 귀중한 조 치도 취해주시고 차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은 덕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차 를 《은정차》로 부르도 록 구 이름도 지어주시 러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숭 고한 뜻을 활짝 꽃피워가 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손길을 떠나 향 기 그윽한 은정차에 대해 어 쩌 생각할수 있으랴.

은정차는 구수하고 진 한 맛, 독특한 향기로 하 여 국내뿐아니라 외국인 들과 해외동포들속에서도 인기가 자자하다.

본사기자 고영 숙

겨울(절민속놀이)

제기차기

제기차기는 제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차는 것을 겨루는 어린이놀 이이다. 제기는 엽전이나 동그란 쇠조각 같은 데 종이나 짐승털, 형질 등을 솔처럼 달아서 만 들었다.

세나라시기에 꿩깃을 단 공을 땅에 떨어뜨리 지 않고 차는 《축국》이라는 청장년들의 체 육유취가 있었다. 그것 이 어린이유희인 제기 차기로 변하였다고 보 고있다.

제기차기에는 개별적 으로 노는 방법과 집체 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 다. 개별적으로는 한발 로 땅을 딛고서서 다른 쪽 발의 안쪽모서리로 련속 차올리기, 량쪽발 의 안쪽모서리로 번갈아 차기, 한쪽발의 발목 안 쪽모서리와 다른쪽 발의 뒤축으로 번갈아차기, 한쪽발만 땅을 딛고 다 른쪽 발은 땅을 딛지 않 고 차다가 제기를 높이 올려차서 머리나 잔등에 엮기, 한발로 련속 차다

가 마갑에 멀리 차던지 기, 제기를 차면서 일정 한 거리를 돌아오기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승부 를 겨루었다.

집체적으로 하는 제기 차기방법에는 우와 같 은 방법을 편을 갈라하 는 외에 제기를 차면서 서로 넘겨주고받고 하는 등 몇가지가 있다.

제기차기는 오랜 시간 한발로만 땅을 딛고서서 동작을 하면서도 몸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평형감각이 발달

되어 공중 뒸다 떨어지 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판단력과 그에 적응한 명중력을 키워준다.

특히 어린이들로 하 여금 추위앞에 기가 죽 지 않고 활기있게 놀면 서 몸을 튼튼히 단련하 게 하는 좋은 놀이이다. 제기차기는 우리 나라 어린이들의 기질과 요구 에 맞는 재미있는 놀이 인것으로 하여 오랜 옛 날부터 오늘까지 전해져 내려왔다.

본사기자



1월에 반드시 먹어야 할 식품 3가지

겨울이 한창일 때에는 몸안의 독과 산을 비롯한 불필요한 물질들을 인체 밖으로 배설하는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음식은 소화가 잘되는것이면서도 알칼리성이여야 한다. 뜨거운 국과 레몬, 마늘은 여기에 알맞은 식품이다.

—뜨거운 국
강추위때에는 걸죽하고 푸짐한 뜨거운 국을 먹어야 한다. 고기나 물고기, 닭고기국물이 좋으며 양배추, 완두콩, 줄당콩 등

을 넣는것이 좋다. 섬유소와 미량원소, 총 불필요한 물질들을 함유하고있는 국을 먹으면 정상적인 장내세균총을 형성함으로써 면역력유지에 기여한다.

—레몬
겨울에 인체는 추위를 이겨내기 위하여 모든 에 네르지를 총동원한다. 그러나 추위가 가셔지면 인체는 급격히 약해진다. 따라서 1월에는 레몬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C를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비 타민C는 인체의 면역기능 을 높여준다.

—마늘
겨울에 사람들은 많 은 시간을 실내에서 보낸 다. 따라서 바람이 잘 통 하지 않는 공간에서 기하 급수적으로 번식하는 각 종 병원성세균들의 영향 을 받게 된다. 하루에 마 늘 한쪽을 먹으면 감기발 생위험성을 3분의 1로 낮 출수 있다.

본사기자

사 화 매 화 한 그 루 (2)

글 리 빈, 그림 김 윤 일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 같은 얼굴들을 하나하나 더듬어보았다.

장도사한테는 이미 빚을 지고있으니 또 손을 내밀수가 없는게고 박씨네는 인심은 좋으나 우리 집이나 한가지로 빈털터리인즉... 그렇지, 리첩지네가 있지. 헌데 리첩지는 속이 영글한 사람이니 말보리가 딱 질색인걸. 헌즉 아무데서도 쓸수 없다는 소리가 아닌가?...

이러는 새에 어느덧 동창이 흰히 밝아왔다. 곁에서 자던 안해가 부시시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주어 입는것을 본 김홍도는 슬그머니 속이 썩었다.

어제 아침 안해가 끼니거리 《변통》을 애원했었는데 빈손으로 돌아온 죄책감이었다. 그런데 안해는 마치 어제 아침의 애원은 잊기라도 한듯 아무말 한마디 없이 부엌으로 내려갔다. 김홍도는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아, 가장이라는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있으면서도 안해를 저토록 고생시키

다니...) 이것은 이때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느끼는 죄의식은 아니었다. 항상 마음에 지니고있는 죄스러운 마음이였으며 그것을 타개할 그 무슨 수습책이 전혀 없는 자신에 대한 일종의 타메이기도 하였다.

허나 그는 일어났다. 어떻게 하나 돈을 마련해야만 하였기때문이었다. 헌때화가 불리일으킨 지 쫓은 유혹이 그로 하여금 이러저러한 가정사정에만 얽매어있으라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던것이였다.

김홍도는 연암 박지원 선생을 찾아가결심을 하였다. 그림을 몹시 사랑할뿐아니라 회화분야에도 조예가 깊은 박지원은 도 화서에 자주 들러 완성된 작품이든 한창 창작중인 작품이든 상관없이 일일이 주의깊게 감상하면서 화공들의 솜씨를 높이 평가하기도 하고 귀중한 조언도 주곤 하였다.

김홍도가 열네살때에 당시 세자로 있던 정조

의 초상화를 그리어 세상을 놀래운 때로부터 박지원은 오늘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깊은 관심속에 두고 그의 회화기향상을은 물론 의식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힘써왔었다. 한편 빈한한 김홍도의 집현편을 놓고 늘 걱정해주면서 무슨 옷가지 같은것이 좀 생겨도 김홍도와 나누어입기도 하고 어쩌다 집에서 별식을 만들게 되면 허물없이 덜어보내주곤 하였다.

이뿐이 아니었다. 김홍도의 뛰어난 재능과 남달리 풍속을 사랑하는 정신을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널리 선전하며 그를 세상에 내세워주기 위해 구력 원심을 써주었다.

김홍도는 이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스승으로 모시는 그에게서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였다.

김홍도가 평민들의 생활속으로 깊이 들어가 갖가지 생활풍속들을 사랑을 담아 화폭에 진실하게

잘 그릴수 있는것은 박지원과 교류하면서 그의 실학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때문이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하여 김홍도는 박지원밖에 믿을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를 찾아가게 된것이였다.

박지원의 집에는 때마침 공교롭게도 박지원의 수제자인 초정 박제가와와있었다. 손님이 있는데

일 돈이 없으면 대화에 대해서는 다시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것이라는 근심을 안은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찾아온 뜻을 아뢰었다.

《그러지. 나를 믿고 하라 부락인데... 조금 기다리라》라고 흔연히 대답하며 일어난 박 지원은 웃방에 올라가 부인과 한동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나오더니 이어 김홍도



서 구찬한 소리는 꺼내놓기가 난처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물러갈수 없는 김홍도였다.

선생이 결코 거절하지는 않을것을 뻔히 알고는 있었으나 《없으면 제 아버지 제사도 지내지 못한다.》고 선생에게도 만

의 앞에 돈 석냥을 꺼내놓는것이였다.

(아껴두었던 돈이 분명하구나! 아!...)

불덩어리를 안은듯 가슴이 딱 뜨겁게 달아오르고 목이 짝 메여 김홍도는 고맙다는 말조차 할수가 없었던것이였다. 연암선

생의 살림형편도 별로 넉넉치 못하다는것을 알고 있는 그로서는 한편 너무도 미안하여 몸둘바를 몰랐다.

그는 박지원앞에 엎드려 《선생님, 외람된 저의 청을 나무람 없이 참어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라고 사의를 표시하고싶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역시 목이 메여서였다.

민씨의 집을 향해 걸음을 다그치는 그의 마음은 조금했다. 꽃을 사겠다는 사람이 열이 넘었다는 민씨의 말이 귀전에서 맴돌고있었기때문이었다.

(그사이 매화가 다른 손으로 넘어갔다던?...)

룩주비전끝에 있는 사헌부 지평의 집앞을 지나던 김홍도는 어린 까온 닭인지 그 집 담장밑에 쫓고있었다 허공을 멍수기 쳐다보고있는 사람에게로 눈길에 향했다. 마침 그 사람은 팔소매로 눈언저리를 문대고있었다.

(우는 모양이구나.) 김홍도는 그가 몹시 불쌍하였으나 바쁜 걸음이 라 관심을 돌릴 겨를이 없게 내쳐 지나쳐버렸다. 내가 구하여 관심할 까닭이야 없지. 이 길바닥에

별의별 슬한 사람들이 쫓갈렸은즉 저 사람도 그들중의 한사람일뿐이 아니겠는가?!...

김홍도는 이렇게 자기를 위안하였지만 어쩔지 무슨 잘못을 저지른듯 마음은 편치 않았다. 한것은 아무래도 그가 낮이 떠 익다는 느낌이 집요하게 파고드는데문이었다.

(누굴가?... 하긴 누구인들... 낮익은 사람이 좀 많 다구. ...)

생각을 예뻐 지워버리려고 은근히 원심을 썼으나 왜서인지 꼭 만나봐야 할 사람의 말이 귀에서 맴돌고있었기때문이었다.

...민씨의 흥정이 벌어졌다. 김홍도는 물건을 보아서는 열량도 아깝지 않았으나 힘겨울게 꾸어온 돈을 가지고 주인이 쫓고있었다 허공을 멍수기 쳐다보고있는 사람에게로 눈길에 향했다. 마침 그 사람은 팔소매로 눈언저리를 문대고있었다.

(우는 모양이구나.) 김홍도는 그가 몹시 불쌍하였으나 바쁜 걸음이 라 관심을 돌릴 겨를이 없게 내쳐 지나쳐버렸다. 내가 구하여 관심할 까닭이야 없지. 이 길바닥에